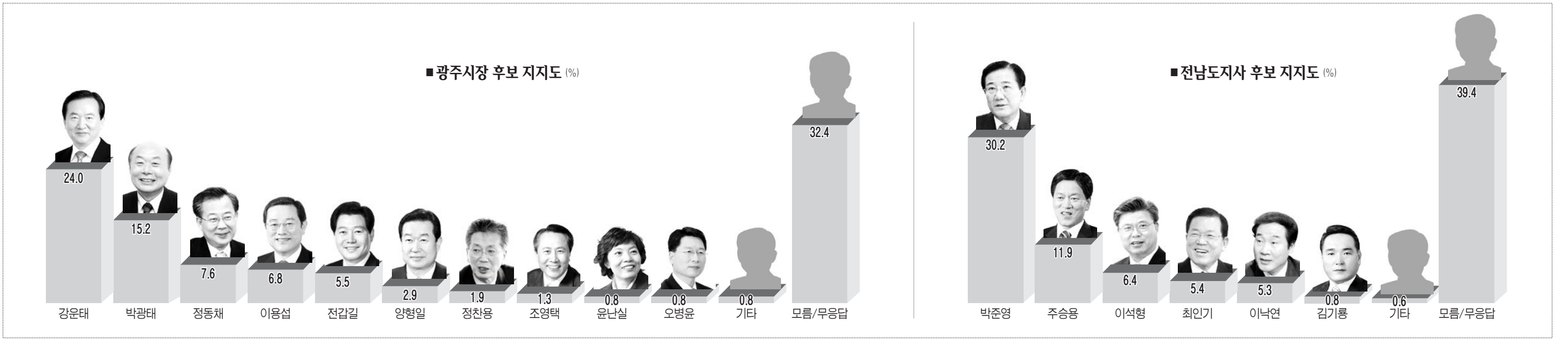


2010 지방선거 여론조사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시장 2強3中 구도 전남지사 현직 박준영 독주



설문내용

1. 선생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1-1.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잘하는 편에 가깝습니까, 잘못하는 편에 가깝습니까?
 ①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③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2. 내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출마 예정인 다음 후보들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R)
 3. 선생님께서 내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인 다음 후보들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R)
 4. 선생님께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에서는 민주당으로 후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 경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R)
 ①100% 당원 여론조사 ②당원 여론조사 50% 시민 여론조사 50% ③100% 시민 여론조사 ④시민배심원제 도입 ⑤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공천 ⑥(불러주지 말 것) 기타 ⑦(불러주지 말 것) 잘 모름/무응답

5. 그렇다면 민주당 내 경선 시기는 언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2010년 지방선거 후보지정일은 5월 중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2월 말까지 ②3월 중순까지 ③4월 중순까지 ④5월 초까지 ⑤(불러주지 말 것) 기타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6. 선생님께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 중 광주시가 새해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
 ①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착실한 준비 ②R&D (연구개발) 특구 지정 ③일자리 창출 ④문화수도 건설 ⑤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차질 없는 조성 ⑥(불러주지 않음) 기타 ⑦(불러주지 않음) 잘 모름/무응답

7. 선생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R)
 ①도덕성 ②교육철학 ③경력·경력 ④공약사항 ⑤(불러주지 않음) 기타 ⑥(불러주지 않음) 모름/무응답

8. 선생님께서 내년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
 ①사교육비 절감 ②학교시설환경 개선 ③교육 평준화 ④학생 학업 능력 향상 ⑤성/학교 폭력문제 해결 ⑥(불러주지 않음) 기타 ⑦(불러주지 않음) 잘 모름/무응답

9. 선생님께서 내년 광주시교육감/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출마 예정인 다음 후보들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R)
 10. 선생님께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①한나라당 ②민주당 ③자유선진당 ④민주노동당 ⑤친박연대 ⑥창조한국당 ⑦진보신당 ⑧국민참여당 ⑨(불러주지 말 것) 없음/모름/무응답

광주시장 지지도

지난해 6월8일 광주일보와 원지코리아컨설팅이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때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랐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 조사에서 나타난 강운태 의원-박광태 시장의 양강구도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용섭 의원이 가세하면서 2강3중 구도로 재편됐다.

이번 조사 결과, 강운태 의원은 24.0%로 6개월여만에 지지율을 10%포인트 가량 끌어올려 1위를 차지했다. 박광태 시장은 지난 조사보다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해 15.2%를 기록, 선두권을 유지했다. 이어 정동채 전 장관(7.6%), 이용섭 의원(6.8%), 전갑길 광산구청장(5.5%)이 중간그룹을 형성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조사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던 이용섭 의원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6.8%를 기록해 주목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주로 중앙에서 근무한 후 18대 총선에서 첫 당선돼 지역활동 기간이 짧은 탓인지 지지도와 지지도에서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이어 양형일 전 의원(2.9%)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1.9%), 조영택 의원(1.3%), 진보계열의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0.8%)과 오병문 민노당 사무총장(0.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32.4%가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이후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따라 지지율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사 지지도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박준영 지사가 30.2%로 경쟁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11.9%, 이석형 합평군수 6.4%, 최인기 의원 5.4%, 이낙연 의원 5.3%, 김기룡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남지사 선거 지지도에서도 응답자의 39.4%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6월 조사보다 지지율이 5.8%포인트 상승했다.

박광태 인지도 단연 선두, 강운태 50대 이상·남구·저학력층서 지지

민주 지지층 박지사 지지율 높아... 응답자 39% "잘 모르겠다" 유보

강 의원은 50대 이상(75.0%)과 남구(41.2%), 저학력층에서 지지를 받았고, 박 시장은 29세 이하(23.9%)와 학생, 고학력층(대학재학 이상 18.8%)에서 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인지도 조사 결과, 광주시민 10명 중 9명(90.5%)은 박광태 시장을 알고 있다고 답변해 가장 높았고, 강운태 의원 63.5%, 정동채 전 장관 62.0%, 전갑길 청장 50.5%, 양형일 전 의원 37.5%, 조영택 의원 35.9%, 정찬용 전 수석 35.0%, 이용섭 의원 32.0% 순이었다.

주 의원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 군수는 8.1%에서 6.4%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최근 전남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군수직까지 전격 사퇴하는 강수를 뒤 적극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에 오는 10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놓고 돌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박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34.1%)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연령·거주지·학력·직업·소득 등을 가리지 않고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고루 높았다. 주 의원은 동부권(19.6%)과 중산층(월평균소득 201~300만원 2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서는 박 지사가 77.0%로 전남도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낙연 의원 49.4%, 주승용 의원 47.9%, 최인기 의원 42.1%, 이석형 합평군수 36.7% 순이었다.

박 지사는 서부권(79.9%)에서, 주 의원은 동부권(61.3%)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이 군수는 동부(44.2%)·서부권(30.3%)에 골고루 분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후보 경선 방법과 시기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8명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역민들은 민주당 후보 경선 방법 중 '당원여론조사 50%, 시민여론조사 50%'(광주 41.7%, 전남 36.4%)방식을 가장 선호했고, '100% 시민여론조사'(광주 36.5%, 전남 32.8%), '시민배심원제 도입'(광주 10.2%, 전남 6.7%) 순이었다.

반면 시민 참여가 배제된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공천'(광주 2.5%, 전남 2.3%)이나 '100% 당원여론조사'(광주 2.2%, 전남 5.3%)는 선호도가 낮았다.

또 경선 시기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2월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1개월여간의 선거운동기간을 둔 뒤 '3월 중순'계(광주 35.8%, 전남 30.3%)나 '4월 중순'계(광주 20.3%, 전남 14.7%)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다른 당과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뒷발'호남에서 먼저 후보 경선을 실시하고 그 여세를 몰아 수도권을 공략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에

민주당 후보 경선 방법과 시기

민주 후보 경선 '당원 50%·시민 50%' 선호

李대통령 국정수행 절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

광주시 가장 시급한 현안 '일자리 창출' 꼽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 정당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의 정당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6명(광주 64.9%, 전남 66.1%)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 여전히 민주당 감세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민노당(광주 6.3%, 전남 4.6%), 한나라당(광주 4.2%, 전남 4.6%) 순이었다. 친노신당

광주시 현안 사업

광주시민들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 중 새해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55.3%)을 꼽았다. 다음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차질없는 조성'(17.7%), '문화수도 건설'(9.1%),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착실한 준비'(8.4%), 'R&D(연구·개발) 특구 지정'(4.4%)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은 여성(60.1%)과 가정주부(62.6%), 30대(5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계U대회에 대해서는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